

# “홀가분” “아직은 불안”...기대·우려 교차 속 모처럼 활기

엔데믹 일상 회복 기대...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표정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30일 광주 시민들 표정에서는 홀가분함과 우려가 동시에 보였다.

이날 광주시 곳곳에서 만난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드디어 마스크를 벗어 홀가분하다”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30일 자정부터 병원,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했다. 지난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약 27개월 만이다.

광주일보가 30일 실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10명 중 3명 꼴로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여전히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마스크를 벗으면 땀 몸으로 다니는 것 같다”며 어색함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은 한산한 편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힐끔 바라보며 아직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어색해하는 분위기였다.

장을 보러 온 박민철(58)씨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을 알고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막상 나와보니 100% 안심할 수 없었다는 걱정에 마스크를 썼다”며 “당분간은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쓰고 다닐 생각이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푸드코트에서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습관처럼 다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김수민(여·23)씨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어색해 밥을 다 먹고 다시 마스크를 썼다”며 “주변에서 어느 정도 쓰지 않기 시작하

“안쓰면 어색해 당분간 착용”

10명 중 3명은 마스크 벗어 자영업자들도 경기 회복 기대감 병원·약국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혼란 없어

면, 그 때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마트 광주점 옷가게 직원 김모(43)씨는 “아직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이번 주 직원 회의에서 지침이 정해질 것 같은데, 대다수 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홀가분하게 마스크를 벗어 던진 자영업자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황희진(여·49)씨는 “오늘 아침 가게 문에 붙어있던 ‘마스크를 쓰고 입장해주세요’ 스티커를 제거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간다는 것이 확 체감됐다”며 “코로나19 이전처럼 일상이 회복돼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스타벅스에서 만난 한 직원은 “주말할 때 마스크 써 달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는데, 드디어 이 말을 하지 않게 됐다”며 “손님들도 더이상 마스크를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한 헬스장에서는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었다.

헬스장 사장 최모(31)씨는 “회원들이 마스크를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아이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밝게 웃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벗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 등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 혼선의 여지도 있었다. 예컨대 대형마트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마트 내 입점한 약국을 이용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식이다.

이마트 광주점 2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효진

약사는 “주말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들이 몰려 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간혹 약국 내에서 약을 먹겠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지적하기도 힘들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발맞춰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도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한 은행을 방문한 박모(75)씨는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 늦은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을 방문했다”며 “오늘부터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하니, 우리처럼 휴대전화로 은행업무를 보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무속인 아버지의 잔혹한 퇴마의식

이틀간 친팔 폭행 숨지게 해 징역 1년6개월...범행 도운 아내 벌금형

퇴마의식을 한다며 친팔(당시 24세)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께 이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굶을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지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A씨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딸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틀에 걸쳐 40분과 50분동안 온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쇼크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피하출혈로 숨졌다. 딸은 어릴적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주경찰청,통합수사·형사팀 운영한다

동부·남부경찰서 2곳 대상  
혼성기동대도 상반기 출범

광주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인사 전후로 일부 수사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30일 광주동부경찰서와 광주남부경찰서에 통합형사팀 운영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시행 일시는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된다.

두 곳의 경찰서 형사과 총원이 30명 이하라는 점에서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형사팀과 강력팀을 합쳐 통합형사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4개 형사팀·4개 강력팀을 통합해 5개 통합형사팀으로 운영한다. 형사과 8개 팀을 운영하면서 이중 형사팀과 강력팀 각 한 팀씩 2개 팀이 한 번에 운영되던 것을 5개 팀으로 줄여 한 팀이 담당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북한 선적에 경유 몰래 판매 서해해경, 브로커 등 3명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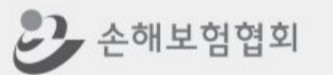
경유를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선적에 몰래 팔아넘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경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51)씨를 구속하고, 국내 정유 공급업체 직원 B(55)씨와 C(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180억원 상당의 경유 1만8000t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통일부의 승인 없이 국내 정유 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1만4000t급)에 경유를 채운 상태로 군산항에서 출항해 중국해상에서 미리 대기하던 소형 중국 선박과 접선해 나눠서 건넜고, 이어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이 경유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